

김삿갓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특질

하 정 승*

<目次>

I. 문제제기	III. 만시류 작품의 표현기법과 문학성
II. 『金笠詩集』 소개 挽詩類 작품 개황과 그 의미	IV. 결어

<국문 초록>

한국한시사에서 김삿갓은 조선후기의 한시 작가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홍경래의 난에 집안이 연루되어 20대 이후로 관직으로 진출할 것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며 방랑시인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다. 본고에서는 김삿갓의 시들 중 만시류 작품을 살펴보았다. 김삿갓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한 그 자신 역시 정치 없는 방랑시인으로서 항상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김삿갓 시문학에 있어서 죽음을 다룬 그의 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그의 만시는 『김립시집』에 실린 시들 중에서도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김삿갓의 만시류 작품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아내의 죽음을 다룬 悼亡詩, 자식의 죽음을 다룬 哭子詩, 벗의 죽음을 다룬 悼朋詩 외에 이름 모를 민초들의 죽음을 다룬 시까지 매우 다양하다. 작품의 분량은 적지만, 挽詩가 다들

* 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 gohak@hallym.ac.kr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 역시 김삿갓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김삿갓은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피하여 방랑시인의 삶을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시에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연민의 정이 가득하다.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민초들을 대할 때면 김삿갓은 항상 애정 어린 시선을 담아 시를 써내려갔다. 이같은 모습은 만시류 작품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김삿갓이 쓴 만시류 작품의 대상 인물들은 모두 이름 없고 가난한 민중들이다. 이점은 사대부 문인들의 일반적인 만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자신은 방랑 시인으로 부귀와는 거리가 멀었고, 매 순간 만나는 사람과 목도하는 현상은 민중들의 고난에 찬 삶이었으니 그의 시에는 자연스럽게 민초들의 지난한 삶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민중들의 삶의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인 것은 역시 죽음을 두고 애도하는 시가 될 것이다. 김삿갓의 만시에 민초들의 삶의 여정과 슬픔이 강하게 묻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만시의 대상과 소재를 넓혔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김삿갓이 이룬 또 하나의 문학적 업적이라 하겠다.

【주제어】 김삿갓, 김립, 김병연, 만시, 만가, 만사, 죽음, 애도, 엘레지, 상여

I. 문제제기

한국 한시사에서 김삿갓(1807~1863)은 매우 특이한 존재다. 우선 그의 본명 대신에 ‘삿갓’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려진다는 것과 항상 도포에 삿갓을 쓰고 다니는 그의 외양도 특이하다. 또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갔던 떠돌이 시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 계기인 홍경래의 난에 연관된 인물¹⁾이라는 것 등 민중의 관심을 끌만한 사항이 한둘이

1) 1811년 평안도에서 발생한 洪景來의 亂 때 宣川府使로 있던 김삿갓의 조부 金益淳이 반군에 항복하고 투항한 죄로 사형을 당하였고, 이에 집안이 멸문의 화를 당하여 김삿갓의 부모와 형제들이 제각기 흩어지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 김삿갓의 나이 6세였는데, 그는 모친 및 형 炳河와

아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김삿갓은 조선후기의 한시 작가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명성이 현재까지도 큰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삿갓과 관계된 이야기²⁾, 노래³⁾는 물론 각종 상품에 김삿갓을 이용하고⁴⁾ 심지어 지방 행정 조직에서 김삿갓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面이 등장할 정도이니⁵⁾, 김삿갓의 영향력은 그 어떤 시인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역사에 수많은 방랑시인들이 존재했지만, 그 정점에 김삿갓이 있다고 해도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김삿갓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생애, 파격적인 양식의 시, 풍자시, 언문시, 문학적 특질과 시에 나타난 작가정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⁶⁾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김

함께 황해도 곡산으로 피난하게 된다.

- 2) 예컨대 黃五의 「金莎笠傳」이라든가 申錫愚의 「記金鑿笠事」 등 김삿갓 當代의 기사는 물론 민간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구전설화와 현재도 진행 중인 김삿갓을 소재로 한 소설들, 가령 고은의 『김삿갓』, 이문열의 『시인』, 정비석의 『소설 김삿갓』을 비롯한 많은 소설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3) 김삿갓을 소재로 한 노래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장르도 다양하여 경북 의성 지역의 「김삿갓노래」를 비롯한 민요를 위시하여 신중현의 앨범 『김삿갓』, 홍서범이 노래한 「김삿갓」, 김용임이 노래한 「방랑시인 김삿갓」 등은 일반 가요이고, 서울예술단에서 공연한 「김삿갓」은 뮤지컬이거니와 거의 모든 장르에서 김삿갓 관련 노래들이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소주를 비롯해서 김삿갓 이름을 붙인 각종 주류, 삿갓 등 각종 캐릭터 상품들은 물론 식당, 펜션 등 김삿갓을 이용한 상품의 종류 역시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5) 강원도 영월군에는 해마다 김삿갓 관련 문화 축제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김삿갓의 묘가 있는 지역은 아예 지역 행정 단위 명칭을 2009년도에 ‘下東面’에서 ‘김삿갓面’으로 변경하였다. 전국에 인물의 명칭을 딴 지역 행정 단위가 극소수임을 상기할 때, 김삿갓이라는 인물이 현재까지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실감할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 6) 지금까지 보고된 김삿갓 관련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은근, 「김립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정웅수, 「김삿갓 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박혜숙, 「김삿갓 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임형택, 「이조말 지식인의 분화와 문학의 희작화 경향」,

립시집』⁷⁾에 실린 시들 중에서 죽음을 제재로 한 만시류 작품들⁸⁾을 살

『전환기의 동아시아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정대구, 「김삿갓 시 연구」, 송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권순섭, 「한국 현대시의 전통성 연구: 김립과 송옥의 시에 나타난 골계를 중심으로」, 공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익철, 「김립시의 일 성격」, 『성대문학』 28집, 성균관대학교 성균어문학회, 1992.; 신동근, 「김립시 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준, 「김삿갓 회작시의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창식, 「김삿갓 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우리말글』 21호, 우리말글학회, 2001.; 이창기, 『김삿갓이라 불리는 사내』, 도서출판 하늘아래, 2003.; 광미경, 「芭蕉와 金笠의 比較 研究」, 경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서현도, 「김삿갓의 삶과 시에 나타난 삿갓의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진호, 「김병연 시 연구」, 조선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김규동, 「김삿갓과 한하운 시의 대비적 고찰」, 창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양동식, 「김립시집 원전 연구」, 순천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류연석·양동식, 「김병연 시집 번역 검토」, 『고시가연구』 15집, 한국고시가학회, 2005.; 양동식, 「전남지역과 김병연 문학의 관계」, 『고시가연구』 16집, 한국고시가학회, 2005.; 류연석, 「김립 시에 나타난 동식물 고찰」, 『고시가연구』 7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이창식, 「영월 지역의 김삿갓 인물설화 연구」, 『강원민속학』 20권, 강원도민속학회, 2006.; 서희수, 「난고 김병연 시 연구」, 전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형중, 「김립의 작품 성향 연구」, 『한국언어문학』 62권, 한국언어학회, 2007.; 하정승, 「김삿갓 시에 나타난 비개와 표일의 정신」, 『동방한문학』 32집, 동방한문학회, 2007.; 황동원, 「假名草子, 신본에 수록된 狂詩의 골계미와 김삿갓 한시 비교 연구」, 『일본어교육』 42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7.; 남재철, 「난고 김병연의 삶과 관계된 몇 가지 진실」, 『한문학보』 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양동식, 『김립시집 원전 연구』, 한국문학도서관, 2008.; 박상도, 「일본 내의 김삿갓 문학에 대한 평가 양상」, 『동양학』 47권,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이창식, 『김삿갓 문학의 풍류와 야유』, 태학사, 2011.; 송영민·강준수, 「스토리텔링의 치유 기능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김삿갓의 방랑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권, 한국관광연구학회, 2014.

- 7) 지금까지 보고된 김삿갓과 관련된 주요 시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김삿갓 시집은 일제강점기에 김삿갓 연구자로 활동했던 李應洙에 의해 1939년 2월 15일 발간된 『김립시집』(學藝社)이다. 그 2년 뒤인 1941년에 이용수는 초판본에 빠져 있던 시들을 다시 모아 증보판으로 『김립시집』(한성도서주식회사)을 간행하였다. 특히 이 증보판은 468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이후 간행된 여타의 김삿갓 시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

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특별히 김삿갓의 만시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죽음을 다루는 만시의 문학적 매력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만시는 어떤 인물의 죽음을 두고 쓴 시를 의미한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학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망자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詩化하는 것이 통례이다. 망자와 시인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만시의 애절함은 더해가고 문학적성은 높아진다. 때문에 만시는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본고에서 살펴볼 김삿갓의 경우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한 그 자신 역시 정처 없는 방랑시인으로서 항상 죽음의 문제에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김삿갓 시문학에 있어서 죽음을 다룬 그의 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삿갓이 남긴 죽음 관련 한시들의 목록을 『김립시집』을 중

각된다. 이후 수십 종의 김삿갓 시집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특이한 것은 해방 이후 북한에 있던 이용수가 1956년에 출판한 『풍자시인 김삿갓』(평양 국립출판사)이다. 이 책은 이용수가 그간 모은 자료에 빠진 것들을 모아서 펴낸 것으로 이용수의 마지막 유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남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근자에 들어 『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이란 이름으로 실천문학사에서 2000년도에 출판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중국 연변대학 주관으로 북경민족출판사에서 『김립·조수삼 작품집』이 출간되었다. 최근에 출판된 책으로는 2000년 이명우가 『방랑시인 김삿갓 시집』(집문당)을 출간했고, 2007년에는 양동식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을 두루 다니며 수집한 고서를 참고하여 『길위의 시』(동학사)라는 시집을 출간하였다. (이상 이용수와 김삿갓 관련 시집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하정승, 앞의 논문, pp.338-340.을 참조할 것.) 본고에서 인용한 시들은 1941년판 『김립시집』을 저본으로 하고, 실천문학사에서 발간된 『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8) 여기에서 만시류라고 거명한 이유는 ‘悼朋詩’, ‘悼亡詩’, ‘哭子詩’ 등 일반적인 만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는 작품이 있는데다, 일반적으로 시인과 망자와의 직접적인 친밀성에 의해 만시가 창작되는 것과는 달리 김삿갓의 시들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가령 거리에서 죽음을 목격한 순간 망자를 위한 만시를 지어냈기 때문에 기존 만시 개념의 폭을 넓혀서 만시류라고 지칭하였음을 밝힌다. 이상 만시의 일반적인 개념과 그 범주에 대한 사항은 최재남, 『한국에도시연구』(경남대출판부, 1997.)가 참조가 된다.

심으로 정리해 보고, 이 시들의 분석을 통하여 표현기법과 문학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김삿갓 문학에 있어서 만시류 작품이 갖는 의미와 한국 한시사에서 차지하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金笠詩集』 소개 挽詩類 작품 개황과 그 의미

김삿갓은 참으로 다양한 한시 작품을 남겼는데, 이를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뉘보면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시 형식을 벗어난 破字詩, 破韻詩, 국·한혼용시 등이 있고⁹⁾, 내용적인 면에서는 詠懷詩, 詠物詩, 紀行詩, 愛情詩, 紀俗詩 등이 있다.¹⁰⁾ 그 중에서 인간의 죽음을 접하고 그 감회와 애도를 담은 만시류에 속하는 작품은 대략 6수 남짓이다. 현전하는 김삿갓의 시가 250여 수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¹¹⁾, 6수라는 분량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시가 『김립시

9) 한국이나 중국의 한시사를 살펴보면 근체시의 형태를 벗어난 雜體詩類의 시들과 압운 등의 근체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벗어난 시들이 꾸준히 창작되어 왔으나, 김삿갓의 경우처럼 평측, 압운 등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한 글과 한자를 같은 구절에서 혼용하고, 한자를 해체하여 시 전체를 破字의 형태로 짓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김삿갓의 경우에도 그가 지은 모든 시가 한시의 형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시인보다도 실험적인 양식의 한시를 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0) 이용수가 펴낸 『김립시집』에는 전·후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편은 “결식”, “인물”, “詠物”, “山川樓亭”, “잡편” 등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시들을 내용상 분류해보면 詠懷詩, 詠物詩, 紀行詩, 愛情詩, 紀俗詩로 나눌 수 있다.

11) 김삿갓의 시가 총 몇 수인지는 확정하기 매우 힘들다. 일단 가장 선본으로 볼 수 있는 1941년판 『김립시집』만 해도 수 백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김립시집』을 비롯한 현전하는 김삿갓 관련 시집들에 전하지 않는 김삿갓 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정대구의 설을 따라 김삿갓의 시를 일단 250여 수로 추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pp.83-96. 참조.)

집』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작지 않다. 그 이유는 김삿갓의 만시류 작품이 보여주는 문학과 시적 감동에 있다. 필자는 김삿갓 시의 기저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김삿갓은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피하여 방랑시인의 삶을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시에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연민의 정이 가득하다.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민초들을 대할 때면 김삿갓은 항상 애정 어린 시선을 담아 시를 써내려갔다. 이같은 모습은 만시류 작품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김삿갓이 쓴 만시류 작품의 대상 인물들은 모두 이름 없고 가난한 민중들이다. 이는 사대부 문인들의 일반적인 만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한시사를 살펴보면 사대부 문인들의 만시는 대체로 동료 선·후배 사대부들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¹²⁾ 김삿갓의 경우처럼 하층민의 죽음에 관심을 보인 시들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일단 매우 드물고 그나마도 사대부들이 집에서 부리던 노비 등과 같은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김삿갓은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일지라도 가엾고 서러운 죽음 앞에서 붓을 들었다. 이 때문에 김삿갓의 만시에 는 한 인간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하고 애도하려는 추모의 감정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의례적으로 짓던 조선후기 여느 만시들¹³⁾에 비해서 훨씬 잘 드러나 있다. 요컨대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지은 시가 아니고, 시인의 순수한 시적 감흥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정성과 문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삿갓이 이와 같이 이름 없는 민초들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12) 이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 「고려후기 만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50집, 동방한문학회, 2012, p.37.을 참조할 것.

13) 물론 조선후기의 모든 만시들이 의례적이거나 규범화된 감정을 읊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중에는 애뜻하고 애절한 감정을 담은 만시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유교의 喪禮와 제사 의식에 따라 의례적으로 짓는 만시, 만장, 만가도 많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조에 비해 조선조가 더욱 심하고, 조선조에서도 전·중기에 비해서 만시가 일반화되는 후기로 갈수록 더욱 심해짐을 볼 수 있다.

이유는 그의 인생 여정과 관계가 깊다. 그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흥경래의 난에 연좌되어 집안이 멸문의 화를 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피신을 한 것이 그의 나이 6세 무렵이었다. 그 후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영월에서 은거하다가 20세 이후에는 샷갓을 쓰고 전국을 떠도는 방랑의 삶을 시작하였다.¹⁴⁾ 그의 방랑생활은 중간에 잠시 멈춘 것을 제외하고는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대략 잡아도 30여 년이 넘는 세월이었다.¹⁵⁾ 이처럼 평생에 걸쳐 전국을 떠도는 삶을 살았으니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 자신은 방랑시인으로 부귀와는 거리가 멀었고, 매 순간 만나는 사람과 목도하는 현상은 민중들의 고난에 찬 삶이었으니 그의 시에는 자연스럽게 민초들의 지난한 삶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민중들의 삶의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인 것은 역시 죽음을 두고 애도하는 시가 될 것이다. 김삿갓의 만시에 민초들의 삶의 여정과 슬픔이 강하게 묻어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김립시집』에 실린 만시류 작품군에 속하는 시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詩題	형식	권수	비고(대상인물)
(1)	自傷	칠언절구	前篇1, 放浪篇	어느 남자의 妻子
(2)	見乞人屍	칠언율시	前篇1, 放浪篇	어떤 乞人
(3)	喪配自輓	칠언율시	前篇1, 放浪篇	신혼에 죽은 어느 아내
(4)	寒食日登北樓吟	칠언절구	前篇1, 山川樓亭篇	어느 과부의 남편
(5)	輓詞	칠언절구	前篇1, 逸話篇	同知
(6)	輓歌	육언고시	前篇1, 逸話篇	어느 과부의 남편

14) 이상 김삿갓의 일생 및 그가 샷갓을 쓰고 방랑을 하게 된 사연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 앞의 논문, 2007.과 남재철, 「난고 김병연의 삶과 관계된 몇 가지 진실」(『한문학보』 19집, 우리한문학회, 2008.)을 참조할 것.

15) 김삿갓은 20대 초반에 방랑생활을 시작해서 1863년(철종 14) 57세의 나이로 전남 화순군 동북면에서 숨졌으니 그의 방랑생활은 대략 잡아도 30여년이 넘는다.

위의 표를 보면 김삿갓 만시류의 형식은 칠언절구 3수, 칠언율시 2수, 육언고시 1수 등이다. 칠언절구가 3수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만시의 형식에 있어서 오·칠언율시나 고시가 많은 것¹⁶⁾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현상은 『김립시집』에 전해지는 시를 일별해보면 대체로 칠언절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평소에 김삿갓이 가장 즐겨 쓰던 시형식이 칠언절구이기에 만시 역시도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위의 시들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1)은 아내와 자식의 죽음을 다룬 悼亡詩이자 哭子詩이고, (3)은 아내의 죽음을 다룬 도망시, (5)는 벗의 죽음을 다룬 悼朋詩, (4)와 (6)은 남편의 죽음을 다룬 것이고 (2)는 노상에서 만난 어느 길인의 죽음을 쓴 만시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6수의 만시 모두 대상 인물들이 김삿갓과는 평소 친분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주지하다시피 만시는 어떤 개인의 죽음에 애도와 안타까운 감정을 표시하는 시로써, 그 속성상 시인과 망자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김삿갓의 만시는 일반적인 만시 작법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이는 김삿갓 만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면모로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의 죽음과 같은 가족의 입장에서 쓴 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망자들은 김삿갓 본인과는 직접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고, 다만 시인은 살아남은 망자의 가족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면서 시를 쓰고 있다. 이 점 역시 일반적인 만시들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의 죽음을 다룬 悼朋詩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김삿갓 시만의 특이점이다.

16) 고려조 이후 사대부 문인들의 만시에서 가장 많은 형식을 차지하는 것은 오·칠언율시와 고시들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 앞의 논문, 2012.나 하정승, 「이승인의 만시류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한국한시연구』 21호, 한국한시학회, 2013.)을 참조할 것.

위의 표에서 悼朋詩로 볼 수 있는 작품은 (5)번 시 한 수인데, 그것도 시의 대상인 망자는 김삿갓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삿갓이 알고 있는 어느 인물의 친구이니 말하자면 친구의 친구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김삿갓의 만시에 悼朋詩가 적은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김삿갓이 세속의 인연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방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속의 이욕이나 교유 관계를 초탈하여 진정으로 한 인간의 죽음을 아파하고 이를 詩化하려는 김삿갓의 의지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Ⅲ. 만시류 작품의 표현기법과 문학성

김삿갓의 만시의 가장 큰 특징은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아 김삿갓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만시는 김삿갓 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수준 높은 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김삿갓 시문학 연구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그동안 풍자시, 기행시, 파격시 등으로 이름이 났던 김삿갓의 시세계에서 또 하나 추가해야 할 장르인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시는 신혼에 아내를 잃은 어느 남자의 독백이다.

아내의 죽음에 바치는 시

遇何晚也別何催	만남이 늦었건만 이별은 어찌 그리 빠른가
未卜其欣只卜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슬픔만을 알게 되었구나
祭酒惟餘醯日釀	祭酒는 초례 날 빛은 게 남아있고
襲衣仍用嫁時裁	壽衣는 시집 올 때 지은 옷을 그대로 썼네
窓前舊種少桃發	창문 앞 오래 전에 심은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고
簾外新巢雙燕來	주렴 밖의 새로운 둥지엔 제비 한 쌍이 날아왔네
賢否卽從妻母問	아내의 품성을 장모님께 물었더니
其言吾女德兼才	내 딸은 덕과 재주를 겸하였다 하시네 ¹⁷⁾

위의 인용시는 혼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떠나 보낸 젊은 남편의 悼亡詩이다. 여기에서 ‘도망시’라고 규정한 이유는 비록 시인 자신이 喪妻한 것은 아니지만, 作詩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상처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시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적 진술도 아내를 보내는 남편의 1인칭 시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1~2구는 두 부부의 만남이 짧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마도 이 부부는 다른 부부들보다 늦은 나이에 만났던 것 같다. 어렵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오래도록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신혼의 때에 하늘은 이 부부를 생과 사의 서로 다른 길로 갈라놓고 말았다. 그래서 시인은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의 심정을 “이별은 어찌 그리 빠른가”라고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슬픔만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3~4구에 이르면 시는 슬픔이 극에 달한다. 아내가 죽자 남편은 영전에 술을 바치는데, 이 때 사용한 술은 혼례식 때 사용하고 남은 것이었다. 죽은 아내에게 입혀준 壽衣 역시 시집을 때 지어왔던 옷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아내가 시집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5~6구는 아내를 잃은 후 바라본 세상 풍경이다. 초상을 마치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남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에 심겨진 오래된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또한 길게 드리운 주렴 너머로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새로 집을 지은 것도 보였다. 앞의 전반부에서는 아내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긴박하게 써 내려가다 갑자기 시인의 시선이 복숭아꽃과 제비에게로 집중되니 뭔가 어색할 법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김삿갓의 고도의 시적 기교이다. 즉 창밖의 복숭아나무와 주렴 밖의 제비를 바라보는 모습은 매우 한가롭고 고요하며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이는 조금 전의 분주했던 喪禮와 큰 대조를 이룬다. 상갓집이라면 으레 있을 시끌벅적한 곡소리와 문

17) 『김립시집』 前篇, 「喪配自輓」.

상하는 손님들의 떠드는 소리 등은 어느덧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고요한 침묵과 정적만이 남아있다. 또한 6구에서 제비를 표현함에 있어서 “한 쌍”이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한 한 쌍이란 제비 부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지금 강남에서 새로 와서 “새로운 둥지”를 마련했다. 제비 부부는 다분히 죽은 아내와 살아남은 남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들 부부도 제비처럼 신혼인데, 누구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누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어느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 정적이 감도는 고요한 창밖의 나무 풍경과 행복한 제비 부부의 소소한 일상의 풍경은 다름 아닌 젊은 부부의 비극을 극대화 시키는 시적 장치인 것이다.

마지막 7~8구는 죽은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장모에게 물었다는 내용이다. 아내의 성품을 몰라서 장모에게 물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아내의 성격, 성품, 인간 됨됨이 등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죽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염원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인용시는 짧았던 이 땅에서의 인연을 아쉬워하며 죽은 아내에게 바치는 살아남은 남편의 亡婦歌라 할 수 있겠다.

혼자 상심하며

哭子青山又葬妻	청산에 아들 묻었는데 아내 또한 장사 지내니
風酸日薄轉淒淒	바람은 스산하고 날은 저물어 더욱 처량하다
忽然歸家如僧舍	홀연히 돌아온 집은 절과 같이 고요하니
獨擁寒衾坐達鷄	홀로 찬 이불을 덮어쓰고 닭 울도록 앉아있다 ¹⁸⁾

위의 시는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피맺힌 절규이다. 시적화자는 아들을 먼저 잃은 것 같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얼마 후 아내마저 죽게 되었다. 추측컨대 아들을

18) 『김립시집』 前篇, 「自傷」.

잃은 슬픔 때문에 어미에게 병이 생겨 죽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들과 아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세상을 떠났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그리 긴 간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들을 청산에 묻고 아내마저 장사지내는 날은 하늘도 함께 슬퍼하는지 바람마저 스산하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날이 어두워지자 더욱 처량해진 남편은 홀로 집에 돌아온다. 아내와 아들이 없는 집안은 마치 절간에 온 것처럼 고요하기만 하다. 남편에게 죽은 아들 이외에 다른 자식이 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고요한 집안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집에는 다른 가족 없이 남편만 혼자 있었던 것 같다. 혹 다른 자식이 있었다고 해도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잃은 남편에게는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4구는 이 시의 절정이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홀로 찬 이불을 덮어쓰고” 새벽 동이 터오를 때까지 앉아있다. 여기에서 “찬 이불”이라는 이미지는 실제로 사용했던 이불이 차가웠을 수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고독함과 홀로 남겨졌다는 처절한 슬픔의 심정을 드러내는 시적 소재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시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며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영화나 사진의 한 장면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에 닭 우는 소리까지 더해져 밤을 꼬박 지새웠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아내를 잃은 남편의 상심과 슬픔이 독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는 물론 김삿갓의 시인으로서의 노련함과 시적 기교가 잘 드러난 實例라고 할 수 있겠다.

輓歌

歸何處歸何處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三生瑟五采衣	이 세상의 온갖 기쁨 부귀영화
都棄了歸何處	모두 버리고 어디로 갔나
有誰知有誰知	그 누가 알까 그 누가 알까
黑漆漆長夜中	칠흑같이 어두운 긴긴 밤을

獨啾啾有誰知 홀로 흐느끼는 이 슬픔을 그 누가 알까
 何時來何時來 어느 때나 오려나 어느 때나 오려나
 千疊山萬重水 첩첩이 산을 넘고 겹겹이 물을 건너
 此一去何時來 이 번 한번 갔으니 어느 때나 오려나¹⁹⁾

위의 시는 남편을 그리며 부르는 아내의 노래이다. 시의 형식은 六言古詩의 형태인데, 每句마다 예컨대 “歸何處 / 歸何處 // 三生瑟 / 五采衣”와 같이 세 글자 / 세 글자로 분절되어 굉장히 리듬감이 좋다. 번역문 역시도 每句마다 분절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어디로 갔나 / 어디로 갔나 // 이 세상의 온갖 기쁨 / 부귀영화 // 모두 버리고 / 어디로 갔나”와 같은 형식이다. 시인이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데, 가장 큰 목적은 노래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인용시는 단순히 문어체 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가 부르는 노래를 한시의 형식으로 그대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詩題가 「輓歌」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喪輿가 나갈 때 부르는 ‘상여소리’를 ‘만가’라고도 하는데, 위의 시가 남편의 죽음을 치르는 喪禮 때 실제 상여소리로 불렸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²⁰⁾ 그보다는 시인이 상여소리의 풍으로 만시를 지은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굳이 상여소리의

19) 『김립시집』 前篇, 「輓歌」.

20) 상여소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지방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요령잡이가 부르는 메기는 소리와 이를 받아 부르는 상여꾼들의 받는 소리로 구성된다. 형식은 보통 출상 순서에 따라 序唱·行喪소리·자진상여소리·달구소리로 나누어진다. 서창은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집을 출발하면서 느리게 부르는 부분이고, 행상소리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이며, 자진상여소리는 묘지에 거의 도착해서 산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소리이고, 달구소리는 하관 뒤에 무덤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6언 9구 형식의 위의 인용시는 실제 상여소리와 비교해보면 매우 소략하여 실제로 부른 노래를 한시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이 상여소리 풍으로 作詩한 것으로 보는 게 더욱 타당할 듯하다. (이상 상여소리의 형식과 구성에 대한 사항은 이응백 외,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8.)을 참조할 것.)

형식을 빌은 만가로 시를 지은 이유는 남편의 죽음을 당해 슬퍼하는 여인의 심정을 극대화 시키고 시적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해서이다.

인용시의 1~3구는 떠나간 남편을 부르는 소리이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 이 세상의 온갖 기쁨 부귀영화 / 모두 버리고 어디로 갔나”는 상여소리로 치면 ‘序唱’이자 ‘폐기는 소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가족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행하던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떠나간 망자에 대한 울부짖음이자 비탄의 소리이다. 4~6구, “그 누가 알까, 그 누가 알까 / 칠혹같이 어두운 긴긴 밤을 / 홀로 흐느끼는 이 슬픔을 그 누가 알까”는 살아남은 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다.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 뒤의 고통은 망자와는 상관없는 생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망자는 영원한 안식을 취하면 그뿐이지만, 그 후의 삶은 고스란히 살아남은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살아남은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다. 위의 시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시와는 다르게 시적화자가 1인칭으로 여인 자신이다. 시인이 여인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시인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택한 이유는 생자의 슬픔을 좀 더 확실하고 실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이다. 이 여인에게 남편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은 “칠혹같이 어두운 긴긴 밤”일 뿐이다. 그래서 여인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슬픔에 “홀로 흐느낀”다.

마지막 7~9구, “어느 때나 오려나, 어느 때나 오려나 / 첩첩이 산을 넘고 겹겹이 물을 건너 / 이 번 한번 갔으니 어느 때나 오려나”는 떠나간 망자의 혼백을 부르는 招魂의 노래이다. 남편의 영혼은 此岸과 彼岸의 갈림길에서 첩첩산중과 강을 건너 저 彼岸의 세계로 떠나가 버렸다. 그러므로 이 차안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이 없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부인은 공허한 외침인 줄 알면서도 남편의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부르며 혹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물론 그녀의 기다림은 차안의 세계에서는 결코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만가는 슬픔과 눈물의 시다. 죽음은 동서고금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만가는 존재했다. 서양예술의 ‘엘레지(elegy)’나 ‘레퀴엠(requiem)’이 이에 해당한다. 아마도 비통과 비감을 다룬 시문학의 정점은 만가일 것이다. 사실 한국문학사에서 죽음의 슬픔을 다룬 만가는 가장 초기의 작품에서부터 나타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수광부의 처가 불렀다는 「公無渡河歌」가 그것이다. 한국의 고대가요를 대표하는 노래가 ‘죽음의 노래’, 즉 만가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공무도하가 이후 한국문학사에서는 국문시거나 한시를 막론하고 죽음을 다룬 만시·만가풍의 노래가 끊임없이 창작되었다.²¹⁾ 전국적으로 각 지방마다 노래로 불려진 상여소리의 가사들은 그 좋은 예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보면 상여소리를 한시화 시킨 김삿갓의 인용시는 고려후기 민요를 한시화한 이제현의 ‘小樂府’만큼이나 문학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된다.²²⁾ 물론 조선후기의 한시들 중 상여소리를 한역화한 작품은 김삿갓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또한 이같은 시도는 조선후기

21) 예컨대 한시 분야에서는 고려전기 김부식의 만시를 시작으로 이규보, 이색, 정몽주등 문학사를 대표하는 주요 시인들이 만시를 즐겨 지었고, 조선시대로 가면 李穡, 沈彦光을 시작으로 16~17세기 洪暹, 梁慶遇, 張維, 崔錫恒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만시를 지었다. 장르를 한시분야로 국한하지 않으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데 가령 墓誌銘 같은 경우는 만시 못지않게 문인들이 즐겨 지은 죽음과 관련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문학의 경우에도 「공무도하가」 같은 고대가요에서 시작된 전통이 「제망매가」 같은 향가로 이어지고, 다시 각종 시조와 민요로 계승된 점을 볼 때 우리 문학사에서 죽음을 노래한 시가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며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크다고 하겠다.

22) 민요나 상여소리를 한시화 했다는 것은 구전되는 민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가 무엇보다 가장 크다. 다시 말해 작가가 구비문학에 내재된 우리 민족 특유의 감수성과 문학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한국한문학이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중국문학과와의 유사성 내지는 모방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비록 국문이 아닌 한문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 하겠다.

한시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민요의 한역화라든지 또는 민요풍 한시 창작의 유행이라는 큰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시적 안목일 수 있다. 하지만 상여소리를 한시화 시킨 김삿갓의 시도는 단순히 문학사의 유행에 편승했다기 보다는 민중의 아픔과 그것을 詩化시키려는 김삿갓 문학이 지향하는 특유의 문학과 더불어 한시 창작에서 민요풍과 구어체의 언문풍²⁴⁾을 도입하고자 했던 그의 독특한 실험 정신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하다.

한식날 북루에 올라 읊다

十里平沙岸上莎	십리 모래 언덕에 피어난 사초
素衣靑女哭如歌	소복 입은 여인의 곡소리 노래와 같네
可憐今日墳前酒	가련하구나 오늘 무덤 앞에 따르는 술은
釀得阿郎手種禾	낭군이 심어놓은 벼로 빚은 것이라네 ²⁵⁾

위의 인용시 역시 앞에서 살펴본 시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은 아내의 노래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이 죽은 시점의 차이다. 앞의 시가 남편의 죽음을 당해 喪禮를 치르면서 부른 노래인 것에 비해 위의 시는 한식을 맞아 남편의 무덤에서 부른 것이다. 詩題에 나온 ‘北樓’란 아마도 마을 북쪽의 상당히 큰 규모의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높다. 제 1구에서 무덤의 풍경을 묘사하며 “십리 모래 언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식을 당해 소복을 입은 어느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 시인은 이 여인의 곡소리를 “노래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하나는 여인이 노래 부르듯이 곡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여인의 곡소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시인이 듣기에 그 곡

23) 가령 19세기의 문인 臨淵 李亮淵(1771~1853)의 작품에서도 상여소리를 형상화한 형태의 만시가 보인다.
 24) 김삿갓 한시의 파격성과 민요풍, 또는 언문풍의 도입에 대한 사항은 정대구, 『김삿갓 연구』(문학아카데미, 1990.)에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25) 『김립시집』 前篇, 「寒食日登北樓吟」.

소리가 노래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노래 같은 곡소리가 무덤가에 울려 퍼진다. 또한 여인이 소복을 입고 있다고 했으니 남편의 죽은 날이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주지하다시피 寒食은 冬至 후 105 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 치면 4월 초순에 해당한다. 이 날은 돌아가신 조상의 무덤에 제를 지내고, 만약 무덤이 헐었으면 잔디를 다시 입히는 일명 ‘改蒞草’를 하기도 한다. 농가에서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씨를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한 해가 시작되는 봄날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인의 남편의 죽음은 더욱 허무하고 착잡하다. 한편에서는 시작하고 한편에서는 끝이 났기 때문이다. 시인이 시제에서 굳이 ‘한식’임을 밝힌 것도 혹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른다.

이 시의 슬픔의 절정은 뒤의 3~4구이다. 시인은 여인이 남편의 무덤에 따르는 술을 주목한다. 그 술은 여인의 남편이 생전에 농사지은 쌀로 빚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인의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이 본인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망자가 죽은 기간이 오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아내가 죽은 남편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시인이 3구에서 “가련하다”고 한 것도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을 애뜻하게 여긴 표현이다. 말하자면 남편의 무덤에 뿌려진 남편이 손수 만든 술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내는 그 분신을 통해 죽은 남편과 대화하고 소통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무덤에 뿌려진 술은 그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내와 저 세상의 남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보면 남편은 본인이 만들어 놓고 간 술을 통해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인이 술을 주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다.

輓詞

同知生前雙同知 동지의 생전엔 우리 서로 쌍동지였는데
 同知死後獨同知 동지가 죽은 후엔 나 홀로 동지라네
 同知捉去此同知 동지여! 이 동지도 데려가 주게
 地下願作雙同知 지하에서라도 쌍동지가 되고 싶다네²⁶⁾

위의 시는 친구의 죽음을 맞아 그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담아 쓴 悼朋詩이다. 김삿갓이 남긴 6수의 만시류 작품 가운데 유일한 도봉시 계열의 작품이지만, 사실 도봉시는 한국한시사 전체를 놓고 보면 만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만시의 대표적 장르다.²⁷⁾ 그만큼 사대부 문인들의 시 쓰기에서 친구, 선·후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위의 인용시의 대상은 김삿갓 본인의 친구는 아니고 김삿갓의 지인의 친구다. 하지만 김삿갓은 자신이 친구를 잃은 지인의 입장이 되어 1인칭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도봉시 계열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위의 인용시는 필자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수의 도봉시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작품이다. 친구가 아니라 부모나 부부, 혹은 자식이 죽었을 때의 감정 이상으로 시적화자는 슬픔에 차 있기 때문이다. 시는 “동지의 생전엔 우리 서로 쌍동지였는데 / 동지가 죽은 후엔 나 홀로 동지라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同知’란 특별히 부를 어떤 직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존칭어로 쓰는 말이다. 이 시에서는 말하자면 죽은 친구도 동지이고, 시적화자도 스스로를 동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친구의 생전엔 “雙同知”였는데, 친구의 사후엔 “홀로 동지[獨同知]”라는 말은 망자와 시적화자의 친분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평생을 항상 붙어 다닌 단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적화자는 쌍동지에서 독동지로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만큼 친구가 시적화자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컸던 것이다. 가

26) 『김립시집』 前篇, 「輓詞」.

27) 이에 대한 사항은 하정승, 앞의 논문, 2013, pp.114-116.을 참조할 것.

장 소중한 가치는 그 가치가 존재할 때엔 쉽게 인식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 가치의 부재 시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때엔 이미 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슬픔은 배가 된다. 부모가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친구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인지 시적화자는 3~4구에서 매우 걱정해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울부짖는다. “동지여! 이 동지도 데려가 주게 / 지하에서라도 쌍둥지가 되고 싶다네” 친구의 죽음을 맞아 살 소망이 없으므로 본인도 함께 죽고 싶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아무리 친구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해도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정의 발산이다. 이러한 표현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경우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삿갓이 이처럼 과장된 표현으로 시를 쓴 것은 망자와 생자와의 우정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끈끈하고 두터운 관계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자의 슬픔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이유에서라고 보인다.

이 시에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사항은 시의 구성과 표현이다. 칠언절구의 짧은 형식에서 ‘同知’라는 표현이 모두 7번이나 나올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물론 동지를 잃은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김삿갓 특유의 파격과 해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1구에서 4구까지 마지막 4구의 시작 부분만 제외하고 매 구마다 동지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끝을 맺고 있다. 이것 역시 일반적인 한 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구성과 형식의 파괴다. 이러한 구성과 형식의 파괴는 풍자와 조롱의 내용이 많은 김삿갓의 시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인은 어찌하여 친구를 잃은 슬픔의 만사에서조차 이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볼 문제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친구를 잃은 생자의 슬픔과 상심이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만시의 형식에서 벗어나 특이한 구성과 표현으로 감정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용시는 살아남은 독동

지가 떠나간 또 다른 독동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備忘錄이라 할 수 있겠다.

걸인의 시체를 보고²⁸⁾

不知汝姓不識名	그대의 성도 이름도 모르니
何處青山子故鄉	그대 고향은 이 청산 어느 곳인가
蠅侵腐肉喧朝日	아침엔 파리떼가 썩은 몸에 달려들어 시끄럽더니
鳥喚孤魂弔夕陽	저물무렵 까마귀들이 외로운 영혼을 부르며 조문한다
一寸短筇身後物	한 자의 짧은 지팡이는 그대가 남긴 유물이요
數升殘米乞時糧	몇 되 남은 쌀은 빌어먹던 양식이구나
寄語前村諸子輩	마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니
携來一篲掩風霜	한 삼태기 흙으로 바람 서리나 막아주오 ²⁹⁾

인용시는 길거리에 쓰러진 걸인의 시체를 보고 쓴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대의 성도 이름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김삿갓은 전국을 떠돌며 방랑시인으로 살아가는 처지였기에 이 걸인의 시체를 보고 남다른 감회가 일어났던 것 같다. 2구의 “그대 고향은 이 청산 어느 곳인가”라는 표현도 기실 걸인의 처지가 시인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3~4구의 내용으로 보아 김삿갓이 걸인의 시체를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이나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아침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된 김삿갓의 눈에 길가에 쓰러진 한 시체가 눈에 들어왔던 것 같다. 죽은 자는 아무 연고도, 돌볼 가족도 없는 걸인이었기에 아무도 시체를 치워주지 않았고, 파리 떼들만 시끄럽게 달려들어 죽은 몸을 핥고 있었다. “썩은 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시체가 방치된 지 이미 며칠이 지난 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엔 시체를 보고 시인도

28) 기존 출간되어 있는 상당수의 김삿갓 관련 문헌들에서 이 시의 제목을 「路上見乞人屍」라 하였고, 심지어 이용수가 북한에서 1956년 출간한 『풍자시인 김삿갓』에서도 「路上見乞人屍」라고 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텍스트로 삼은 1941년판 『김립시집』에 의거하여 「見乞人屍」라고 하였음을 밝힌다.
29) 『김립시집』 前篇, 「見乞人屍」.

별 관심이 없이 지나갔는데, 저녁에 다시 그 거리를 지나게 되었을 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침에 우연히 봤던 그 시체가 여전히 같은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시인에게 한없는 슬픔과 측은지심이 일어난 것이다. 아침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시체에 들끓던 파리 떼가 까마귀 떼로 바뀌었다는 사실 밖엔 없었다. 까마귀들에게 이리저리 뜯기고 있는 시체를 시인은 4구에서 “까마귀들이 외로운 영혼을 부르며 조문한다”라고 표현하였다. 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조문하는 이 없는, 아니 조문하기는커녕 시체조차 거둬주지 않는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며 그나마 찾아와 준 유일한 손님인 까마귀에게 “弔問”이라는 수식어를 달아 준 것이다.

5~6구는 죽은 걸인이 남긴 유물에 대한 것이다. 시체 옆에는 “한 자의 짧은 지팡이”와 “몇 되 남은 쌀”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 지팡이는 걸인이 생전 사용하던 지팡이였을 것이고, 쌀 역시 구걸하다 남은 것이었다.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 역시 걸인과 사정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마을 사람들에게 길가에 방치된 시체를 치워서 “한 삼태기 흙으로 바람 서리나 막아주”라는 부탁밖에는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김삿갓은 걸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체에 유일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마을의 유지도, 관청의 관리도 아닌 떠돌이 시인이었다. 사실 19세기 조선 사회는 그리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시골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여 많은 유민들이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굶어죽는 경우도 다반사였다.³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마을의 사람들이 걸인의 시체를 치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요컨대 위의 인용시는 당시의 아픈 시대상을 고발하는 의도도 분명 있어 보인다. 가난하고 고통 받는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

30) 19세기 조선 유민의 발생과 그 실태에 대한 사항은 변주승, 「19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사충』 40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2.)에 자세히 다뤄져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하면서도 격앙되거나 흥분된 어조의 현실 고발을 자제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가장 서정적인 만시의 형식을 빌려 시를 쓰고 있다. 이 역시 김삿갓의 시인으로서의 자질과 김삿갓 시가 이룩한 높은 문학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IV. 결어

김삿갓은 우리 문학사에서 김병연이라는 본명보다는 ‘김삿갓’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문학사에서 그의 위치는 ‘삿갓’이라는 그의 필명만큼이나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인이다. 일단 그는 생애와 관련하여 안동김문이라는 명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홍경래의 난에 연좌되어 멸문의 화를 입고 강원도 영월로 피신했던 유년기를 거쳤다는 점에서 인생의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20대 이후로는 관직으로 진출할 것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며 방랑시인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한 존재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그는 한국한시사에서 가장 저명한 시인 중 한 명이 되었다. 일반 독자에게 알려진 인지도로만 보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시인일 것이다. 때문에 김삿갓을 모방하거나 표방하는 수많은 다른 김삿갓들이 존재하여 詩作 활동을 했다는 점 역시 역설적으로 문학사에서의 김삿갓(김병연)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김삿갓이 남긴 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특히 죽음을 다룬 만시류 작품에 집중하여 그 문학적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립시집』에 전하는 시들 중 만시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략 6수 정도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작품 하나하나가 시인의 진정성과 애절함이 묻어 있어 김삿갓의 뛰어난 시적 자질과 문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볼 때 김삿갓 시문학을 논함에 있어서 만시류 작품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김삿갓의 만시류 작품을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아내의 죽음을 다룬 悼亡詩, 자식의 죽음을 다룬 哭子詩, 벗의 죽음을 다룬 悼朋詩 외에 이름 모를 민초들의 죽음을 다룬 시까지 매우 다양하다. 작품의 분량은 적지만, 挽詩가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 역시 김삿갓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한시사적인 면에서 보면 19세기 김삿갓의 만시는 고려전기 김부식 이후로 계속된 만시 창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전의 만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측면도 개척하고 있다. 가령 그동안의 만시가 대체로 친구나 선·후배의 죽음을 다룬 도봉시 중심으로 창작되었던 반면, 김삿갓은 길거리에서 객사한 걸인의 죽음이나 남편을 잃은 가난한 젊은 과부의 슬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作詩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방랑객으로서 전국을 유랑했던 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만시의 대상과 소재를 넓혔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김삿갓이 이룬 또 하나의 문학적 업적이라 하겠다.

표현 기법적인 면에서 보면 한 인물의 죽음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시인의 감정을 때로는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우 냉정하게 절제하면서 슬픔을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적절한 문학적 비유와 상징이 동원되어 있기도 하다. 감정의 과장과 절제는 만시를 창작하는 시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김삿갓의 만시는 이전 시대의 어떤 시인에 못지않게 훌륭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으며, 또 김삿갓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參考 文獻>

- 양동식, 『길위의 시』, 동학사, 2007.
- 이명우, 『방랑시인 김삿갓 시집』, 집문당, 2000.
- 李應洙, 『김립시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41.
- , 『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 실천문학사, 2000.
- 중국 연변대학, 『김립·조수삼 작품집』, 북경민족출판사, 1997.
-
- 곽미경, 「芭蕉와 金笠의 比較 研究」, 경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권순섭, 「한국 현대시의 전통성 연구: 김립과 송옥의 시에 나타난 골계를 중심으로」, 공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규동, 「김삿갓과 한하운 시의 대비적 고찰」, 창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영준, 「김삿갓 회작시의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형중, 「김립의 작품 성향 연구」, 『한국언어문학』 62권, 한국언어학회, 2007.
- 남재철, 「난고 김병연의 삶과 관계된 몇 가지 진실」, 『한문학보』 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 류연석·양동식, 「김병연 시집 번역 검토」, 『고시가연구』 15집, 한국고시가학회, 2005.
- 류연석, 「김립 시에 나타난 동식물 고찰」, 『고시가연구』 7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
- 박상도, 「일본 내의 김삿갓 문학에 대한 평가 양상」, 『동양학』 47권,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 박혜숙, 「김삿갓 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변주승, 「19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 『사충』 40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2.
- 서현도, 「김삿갓의 삶과 시에 나타난 삿갓의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서희수, 「난고 김병연 시 연구」, 전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송영민·강준수, 「스토리텔링의 치유 기능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김삿갓의

- 방랑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권, 한국관광연구학회, 2014.
- 신동근, 「김립 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신익철, 「김립시의 일성격」, 『성대문학』 28집, 성균관대학교 성균어문학회, 1992.
- 양동식, 「김립 시집 원전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 「전남지역과 김병연 문학의 관계」, 『고시가연구』 16집, 한국고시가학회, 2005.
- , 『김립 시집 원전 연구』, 한국문학도서관, 2008.
- 윤은근, 「김립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이건호, 「김병연 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응백 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 이창기, 『김삿갓이라 불리는 사내』, 도서출판 하늘아래, 2003.
- 이창식, 「김삿갓 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우리말글』 21호, 우리말글학회, 2001.
- , 「영월 지역의 김삿갓 인물설화 연구」, 『강원민속학』 20권, 강원도민속학회, 2006.
- , 『김삿갓 문학의 종류와 야유』, 태학사, 2011.
- 임형택, 「이조말 지식인의 분화와 문학의 희작화 경향」,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 정응수, 「김삿갓 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최재남, 『한국애도시연구』, 경남대출판부, 1997.
- 하정승, 「김삿갓 시에 나타난 비개와 표일의 정신」, 『동방한문학』 32집, 동방한문학회, 2007.
- , 「고려 후기 만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방한문학』 50집, 동방한문학회, 2012.
- , 「이승인의 만시류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한국한시연구』 21호, 한국한시학회, 2013.
- 황동원, 「假名草子, 신본에 수록된 狂詩의 골계미와 김삿갓 한시 비교 연구」, 『일본어교육』 42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7.

Abstract

The death imagery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Kim Sat-got's 'Mansi(挽詩)'

*/ Ha Jung Seung**

Kim Sat-got, a poet in the late Joseon period, is one of the best-known poets in the history of sino-korean poetry. He lived a unique life. Kim's family were implicated in Hong Gyeong-nae's rebellion. That is why he gave up entering public life. He led a life of a wanderer travelling around the country.

In this manuscript, I looked at the category of Mansi(挽詩) in Kim Sat-got's poets. He observed many deaths wandering about everywhere, always faced his own death as a rootless vagabond. Death is a important factor in his Poetic literature. Mansi(挽詩) included in a collection of his works, 『Kimlip Sijib』 is excellent in literary value. It covers all aspects of death such as death of wife[Takmangsi(悼亡詩)], son[Gokjasi(哭子詩)], friend[(Dobungsi(悼朋詩)], common people and so on. His Mansi is small in quantity, but deals with a wide range of themes about death.

Kim Sat-got started a life of a vagabond leaving mundane world, but turned his warm-hearted eyes upon world. His love for grass roots is especially reflected in his poets.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his 'Mansi and scholar-gentry class'. He sang about the love for the poor and powerless people. One of his major achievements in creation of sino-korean poetry is expanding subjects and themes of Mansi.

【Key words】 Kim Sat-got, Kimlip, Kim Byung-yeon, Mansi, Manga, Mansa, lament, elegy, bier

투고일 : 10월 27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 Professor of Hallym Univ. / gohak@hallym.ac.kr